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12월 27일 (제1077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하나님을 감동시켜보라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를 해봤는가?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렸다. 모세가 나를 죽이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면벽하고 학처럼,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기도한 것처럼, 나도 눈물로 구구절절 기도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셨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정도로 물질을 심어봤는가?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와서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렸다. 예수님은 감동하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하셨다. 귀한 향유를 받으셔서 감동하신 것이 아니다. 마음과 정성이 그 안에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과부의 두 렵돈을 보시고 도 예수님은 감동하셔서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드린 거라고 칭송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감동하실 정도로 찬송을 해봤는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 하체가 드러나도록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에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그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향하여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믿음의 고백을 해봤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 3:17~18)라고 고백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그의 고백에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그들을 만인 위에 높이셨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용서를 해봤는가? 스테반이 돌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용서하자 예수님이 보좌에서 감동하사 별뿔 일어나셨다.

자식의 말 한 마디에 감동하고, 자식이 내민 작은 선물에도 감동하는 것이 부모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믿음과 기도에 감동하신다. 2021년에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자.

2020년이 저문다. 코로나로 시작하여 여전히 현재진행 중인 팬데믹(Pandemic)의 공포 속에 우리 인류는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난 1년간 우리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며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의 인구가 감염되고 수백만의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희생이라며 미국 및 유럽 각국은 공포의 도가니다.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서서 나아가고 있다. 항상 우리 앞에 먼저 가보았던 선진국들의 발길을 좇

코로나는 반드시 끝날 것이고, 우리의 예배도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전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길ियो!”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뒤따라간다면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음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배운 분명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코로나 초기부터 분명히 말씀하셨다.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바로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교계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해외집회의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를 넘어온 지난 36년 동안 오직 이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에 내가, 우리 예수중심교단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믿음 앞에는 어떠한 불가능도 존재하지 않는다

봉우이초석 목사

아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방역과 경제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길을 부지런히 모색하며 지나온 한 해였지만, 이러한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만의 노하우를 통해 전 세계에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유럽 각국은 한국의 방역모형을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기술적, 문화적 한계로 그들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 한해, 우리는 세 차례에 걸쳐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역시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 악한 마귀는 코로나 감염병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폐하려고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셈이지만, 비록 지금은 어려움 속에 있으나 우리는 결국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 두려워합니까? 성경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366번을 강조하신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합니까? 내 목회 36년도 오직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코로나에 놀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있어선 안 됩니다. 악한 마귀의 꾀계에 저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있어선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양떼를 살피고, 부지런히 연구 개발 노력하여 ‘내가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쫓대를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달려갑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2021년 새해에도 멈출 수 없다. 코로나 앞에 두려워 우왕좌왕할 필요 없다.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 목사님께 배운 대로 실천하면 된다. 부뚜막의 소금도 놓아야 짜다. 배움의 끝은 시작이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12월 9일(수요일예배) ~ 2021년 1월 3일(주일예배)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집니다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 (수1:5~9)

두려움은 내 삶과 신앙의 암이다

“이자가 두려우면 사업하지 말고, 이혼이 두려우면 결혼을 말고, 외국어가 두렵다면 유학이나 이민 가지 말고, 물이 두려우면 수영을 아예 말아라.”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면 그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두려움이란 내 삶을 죽이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366 번이나 담대하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제게 오늘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수1:9).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뒤 대권을 물려받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미 제 목회 길이 순탄치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사실 그 말씀이 있었기에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 같은 목회 36년을 올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고, 무수한 핍박도 받았고, 최루탄으로, 몽둥이로, 칼로, 권총으로 협박도 무수히 받았습니다. 경찰, 검찰에 조사를 받기도 했고, KGB에 끌려가기도 했고, 재판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어찌 그런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훼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 같이 썩어 없어질 것이며 그들은 양털 같이 별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사51:7~8).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회 초 부천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제게 ‘야! 너는 못 쫓아.’ 그러는 겁니다. 순간 덜컥했습니다. 겁이 났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사 “그래, 난 못 쫓아. 근데 너 예수 알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뒤로 벌렁 나가떨어졌습니다. 주의 종들이 왜 귀신을 못 쫓는지 압니까? 두려워서입니다. 귀신이 안 나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니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자고로 명령권자가 책임도 지는 법, 예수 이름으로 명했으니 명령권자인 예수님이

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우리는 그 명령대로 집행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요, 이는 곧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재벌의 자녀들을 보세요. 지나칠 정도로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세상의 왕자들도 어디 가나 담대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작은 것에 놀라고 두려워서 편다면 말이 됩니까? 재력가 앞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 앞에서, 명예가 있는 사람 앞에서 눈치나 슬슬 보고 두려워한다면 됩니까?

그건 아버지 의 능 력

을 못 믿는 것이니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

게 아니라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못한 것이니 불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히13:6).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담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담대하게 나가 골리앗과 싸운 것이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사자굴에 담대히 들어간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담대하게 들어간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사43:1~3).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던 느헤미야가 도비야와 산발랴가 훼방하고 협박하자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느4:14)고 백성들을 독려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해서 영적 정전상태를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갇잡하게 만들어서 별 것 아닌 것에 놀라고 두렵게 하여 마침내는 우리를 공포에 질러 죽게 합니다. 그러나 아시죠? 불만이면 어두움은 물러나는 것을요. 영의 불, 곧 성령의 불만 밝히면 어두움의 주관자인 악한 마귀는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을 주는 악한 것들은 혼비백산하고 물러갈 것입니다. 어린 아이 앞에서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순교까지 하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살다보면 풍량이 물러올 때가 있습니다. 살다보면 실패의 늪에 빠지게도 됩니다. 달리다 보면 태클도 들어옵니다. 두렵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서 주저앉는다면 말이 됩니까? 손흥민이 태클을 무서워했다면 올해 푸스카스 상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악조건 속에서 진행된 인도 뉴델리 집회에서는 영어와 인도어로

3자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역관들이 주변의 여건에 겁먹고 두려워하며 통역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링 위에 올라온 자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링 위에 오른 선수와 같습니다. 싸우다 보면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 제단에 하늘의 불을 끌어내린 엘리야도 시퍼런 이세벨의 칼날에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기세에 다운된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때 홍수환 선수처럼 4전 5기의 신화를 쓰는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하무인인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나 예수님께 최대의 치욕을 당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입니다.

담대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나와도, 경찰이 와도 내가 깨끗하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죄를 들이대며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늘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셉처럼요. 혹 죄를 지었다면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죄를 고해야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한 다윗처럼요.

정직하고 분명하면 땃땃하고 당당하다

여러분, 도전하고 모험해야 성공합니다. 조련사들이 수족관의 상어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쳐서 두려움을 주는 것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 앞에 두려움이란 벽을 쳐서 도전과 모험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벽을 제거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독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며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고 담대하게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2021년은 성취하는 한 해요, 정상에 오르는 한 해가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사람들은 투자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 위해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이런 안일한 생각은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펀드에 투자할 때도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우선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초기에 성장(주식)과 이자소득(채권)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만큼 미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결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은 채권보다 훨씬 더 느려서 그런 투자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주식이 채권보다 수익성이 높은 이유는 기업이 성장해 이익이 늘어나면 그 기업의 주주들의 이익도 덩달아 늘어나 배당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배당은 주식투자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채권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기껏해야 투자했던 원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금은 채권에 몇 년 묶어두는 동안 물가상승으로 실질가치가 크게 줄어들어 예전의 그 돈이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퇴직자들의 경우 대부분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들어 이자소득으로 생활해야 할 때까지 자산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이상 더 살면서 생활수준을 똑같이 유지하려면 투자자산에 성장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구매력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자산 감소를 가져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금리 역시 낮게 유지되므로 이자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듯 일부 초특급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주식 없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에 어느 정도 투자해야 하는지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 돈을 언제 써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피터 린치는 최대한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말합니다. 피터 린치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 금융소득이 필요한 경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주를 보유하고 모자라는 소득은 가끔씩 주식을 팔아 충당하는 것이 채권에 투자해 이자를 받아쓰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젊어서부터 노후를 준비한 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살아있을 때만 있으며, 그 기회는 젊을 때 많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 갖추시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만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도 해서 멋진 미래를 준비합시다. 혼돈의 시대에 깨달은 지혜는 오직 하나, 기도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믿음을 본받고 계승하자

정유재란(1598년) 때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심당길. 그는 온갖 멸시와 압박 속에서도 자신은 조선인이며, 청송 심씨로 살겠다는 굳은 자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일본인이 아닌 자랑스러운 조선인이라는 민족의식을 불어넣어주었다.

그 후손들은 대대로 조상의 정신을 계승하여 '사쓰마 야키'라는 세계적 명품의 도자기를 만들었으며, 12대 심수관 이후 자손들은 그 정신과 함께 이름까지 계승하여 현재 15대 심수관에 이르고 있다. 400여 년이 넘도록 심수관은 죽었으나 무수한 심수관이 살아남아서 앞서간 심수관을 빛내고 더 훌륭한 심수관으로 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목사님의 성역 36주년을 맞아 목사님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그 믿음을 본받아 계승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나 바울의 '나를 본 받으라'는 말이 신

뢰를 주며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몸소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목사님 역시 당신의 삶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을 통하여 모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목사님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신행일치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 목사님의 신앙고백송인 '내 걸어온 길'에 선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길만은 가야 할 길이라며 강한 어조로 교훈하신다.

목사님의 신앙의 결실들을 보며 온 맘 다해 본받고 따르자. 그리하여 목사님의 신앙과 믿음을 계승하여 제2, 제3의 목사님과 같은 자들이 대대로 나와서, 목사님과 교단을 통해 주신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아름다운 손

여보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문객이 정말 많았네. 동네 유지였으니 그럴 수 있지만, 소식을 듣고 멀리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많이 놀랐네. 그들이 와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많이 베풀었다는 거야. 어떤 이는 쌀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애들 학비를 받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급할 때 급전을 챙겨주셨다고 하고, 어떤 이는 빛도 탕감해줬다고 하더군. 우리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도 맺돌에 신발이 마르면 가문이 멸한다고 하시며, 집배원이나 면 직원들이 와도 그냥 보낸 일이 없었대네. 꼭 식사를 대접하곤 하셨지.

여보게!
손이 크면 뭐하고, 손이 아름다우면 뭐하나. 베풀 줄 아는 자의 손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나. 아름다운 손이란 그냥 하얗고 고운 손이 아니야. 매니큐어를 바른 손도 아니지. 남의 상처를 닦아주고,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를 입히는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네.

춘추전국시대에 맹상군이란 정치인이 있었네. 그에게는 삼천의 식객이 있었

는데, 그는 그들의 가정형편을 모두 기록해 때를 따라 선물을 보내고, 또 문객들이 오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자신과 똑같이 식사를 하게 하는 등 많이 베푸는 자였네. 후에 맹상군이 왕의 노를 사서 도망칠 때에 그를 돕고 피신처를 제공한 자들은 바로 맹상군에게 도움을 받은 자들이었네. 세상사 다 자업자득 아니겠나. 성경은 말씀하셨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6:38).

자네가 어려울 때 머물 곳이 있는지, 자네를 받아줄 곳이 있는지 생각해보게. 혹여 없거든 지금이라도 베풀게나.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일진대, 그들이 나중 성장하여 자네의 힘이 될 수 있거든. 자네의 손은 아름다운 손인가? 움켜쥐기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남을 윤택하게 해야 나도 윤택해진다네(잠 11:25). 늘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늘 생각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나.

朋友

보고 배운 대로

초등학교 2학년, 드넓은 올림픽공원에서 하염없이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지루해 역도경기장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흰 양복의 이 초석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을 따라 올림픽공원과 잠실학생체육관, 반포교육관, 그리고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을 다니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사실 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진 않았습다. 그 시절에는 들판의 노루처럼 체육관과 기도원 곳곳을 누볐고, 그러다 지쳐 피곤해지면 눈부신 조명 아래 찌렁찌렁한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사님의 말씀을 자장가 삼아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저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편도선이 심하게 아파서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정말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목사님께 편지를 썼고, 목사님의 기도도와 안수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는 삼십 대 중년으로 확고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체육관과 기도원 곳곳을 뛰어다니며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다 지쳐

부모님의 무릎 아래 잠들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내 영혼이 곤하고 힘들 때면 눈부셨던 조명이 있는 예배당을 찾아갔듯이,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편안히 잠을 잤듯이 더욱 하나님으로, 더욱 말씀안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11:01)라는 말씀은 목사님이 저에게 심어주신 반석의 말씀입니다. 지난 36년간 목사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언행일치는 제 삶의 롤모델이 되었고, 저 역시 목사님의 언행을 따라 진정한 믿음의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더 그 시절의 눈부신 조명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이러한 시기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더욱 다가가며 감사하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도 진실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주신 목사님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훈지 집사
ppjee@hanmail.net

:: 성경에서 배운다 ::

:: 올림 있는 삶 ::

현실의 땅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자!

베트남전쟁 때, 포로수용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포로생활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미군 장교 스톡데일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바로 ‘낙관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낙관주의자’가 왜 견디지 못했을까? 그들은 아무런 현실 직시도, 변화와 도전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크리스마스가 되면, 부활절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나가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날수록 상실감에 휩싸여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력한 낙관주의자’였던 거죠.

반면, 현실을 직시하고 포로수용소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 장기화에 대한 대비,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갈 시기를 엿보던 ‘합리적 낙관주의자’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톡데일의 마음 자세, 즉 암울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며,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

는 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2020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이 맞는 한 해였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인적, 물질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산업과 교회에까지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 다른 자세와 다른 결과를 얻는 사람, 기업, 단체, 교회가 있습니다. 막연한 낙관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은 피해가 점점 커지거나 어려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만,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어려움을 역전시킬 준비와 도전을 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훨씬 좋은 조건, 생각지 못한 기회를 얻으며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재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일 동안,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재 무너진 성벽의 비참한 상황을 똑바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지금의 현실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직시하게 했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선포하며, 그들의 가슴에 비전의 불을 던졌습니다(느 2:11~17). 물론, 그 과정에서 산발랏, 도비야, 계셈은 느헤미야를 비웃었습니다. 무력하게 바라보며 방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그를 전심으로 돕는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기억하셨다는 것이며, 결국 성벽만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현실 직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나로 이겨내게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현실이 나를 흔들게 두지도 않습니다.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변화하기 위한 용기를 간구하지요. 어렵고 힘든 2020년의 어려움 속에 더 이상 매몰되지 맙시다. 가장 짙은 어두움도 한줄기 새벽빛에 끝나듯,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2021년을 다시 밝히게 될 것입니다!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성역36주년 축하글 ::

내가 본 이초석 목사

물 위에서 바라보는 백조는 고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아하고 평화롭고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보는 백조는 많이 다릅니다. 애초로울 정도로 끝없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님을 가까이 뵈면서 든 제 생각입니다. 멋지게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카랑카랑 날선 목소리로 귀신을 쫓는 목사님, 늘 우리 교회에는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낮설고 물선 해외에서도 당당히 사자후를 토하시느 목사님, 다른 나라 지도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진짜 멋집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랫면은 어떨까요? 많이 다릅니다. 목사님은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고,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수없는 고민과 번민에 시달리고, 날이 새도록 한 성도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젖몸살이 나도 자녀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의 심정으로 자신은 쓰러질지언정 성도들을 다 안수하고, 70이 넘는 나이에도 다방면에 공부하고, 거짓말을 못하지는 않지만 안 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냉정하고....

우리는 이초석 목사님의 멋진 모습만 보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진정 박수를 받아야 할 부분은 수면 아래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1992년 4월, 학생체육관 집회 마지막 날에 목사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한 마디로 ‘괴짜’였습니다. 장발에다 흰색 양복을 입고 계단을 두 개씩 뛰어올라 단에 오른 목사님은 의자에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빗을 꺼내서 머리를 빗으셨습니다. ‘헐~~~~’.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 성령세례를 받게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제가 회개와 함께 성령을 받았고, 바로 이 교회로 적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문서선교의 일원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목사님의 수면 위 모습만 보였습니다. 당당함이 멋지고, 파워풀함이 멋지고, 8월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는, 기성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파격적인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뿔수록 수면 아래에서 몸부림치는 그분의 실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당신의 두 친구, ‘기도와 노력’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두 친구는 수면 아래의 절친들입니다.

목사님은 당신의 수족들도 당신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충은 없다’, ‘기도하고 노력해라.’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제 저희에게는 좀 버겁고, 힘들니다. 마치 뱀새가 황새를 쫓아가야 하는 심정입니다.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도 수면 아래의 삶에 집중하면 목사님처럼 가능하다는 것을요. 얼마 전, 목사님께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섭섭하다느니, 억울하다느니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제 투정을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시며 다 받아주셨습니다. 화를 내셔야 당연한데, 되레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했고, 목사님을 더욱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 역시 그분의 수면 아래 삶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계속 마음을 넓히셨기 때문일 겁니다.

목회 36년,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라며 목사님은 ‘내 걸어온 길’이란 찬양시를 쓰셨지만, 실제로 물 없는 사막과 눈 덮인 산야는 외적인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내적인, 수면 아래의 당신과의 싸움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셨기에 백조의 고고함이 목사님께 있음을 압니다.

목사님, 성역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대 최고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도 목사님처럼 보이지 않는 삶 속에 ‘기도와 노력’이란 두 친구를 절친 삼아 목사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신묘수 전도사
jesus5525@hanmail.net

확신

예수중심교회를 다닌 지 벌써 15년이 되었다. 어릴 적 몇 번 다닌 적이 있었지만 이해하기 힘든 생소한 설교에 시간만 억지로 채우다 오던 일이 기억나, 처음 지인 손에 이끌려 우리 교회에 오던 날도 나는 신문과 책을 준비해갔고, 실제로 성가대 찬양이 끝날 때까지 다리를 꼬고 앉아 신문을 읽었다. 모두가 일어나 찬양하며 기도할 때도 곳곳하게 앉아 시간만 어서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다.

드디어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 되자 눈을 들어 처음으로 목사님의 얼굴을 보았다. 확신에 가득 찬 말씀을 온몸으로 사자후를 토하실 때 나는 전율을 느꼈다. ‘무엇이 저분을 저토록 확신에 차게 하일까.’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강한 집중에 빨려 들어갔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집에 돌아와 구입한 성령의 역사 비디오를 보았다. 그중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에 휩싸였다. 여태 수많은 책과 영화를 보았건만 소경이 눈을 떴다는 소리와 글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손꼽아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렸고, 딸아이에게 만화책을 사주면서 주일날은 2부부터 4부까지 종일 2년이 넘도록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인지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딸아이는 목사님이 제일 편하다며 스스로없이 다가가곤 했었다.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나는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알게 되었다. 잘난 줄 알고 매몰차던 나는 목사님 설교가 심장에 쏘힐 때 마음속 깊이 새기며 관용, 인내, 사랑, 용서, 온유를 베풀려 노력했다. 진정한 믿음으로, 어른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목회 3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추성숙 집사

